

“이정현 대항마는 나”...더민주 당권경쟁 치열

호남 출신인 이정현 의원이 신임 대표로 선출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경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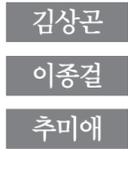
이번에 선출되는 더민주 당 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대선승리다. 따라서 10일 당 안팎에서는 누가 당의 수장이 되는 것이 이정현 대표에 맞서 정권교체를 이루기 유리한지를 두고 논쟁이 벌어졌다.

후보들도 자신이야말로 이 신임대표의 대항마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더민주의 당권 레이스 구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하지만, 비주류인 비박(비박근혜)계가 이긴 것도 아니고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가 완승한 상황이 더민주 전당대회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일단 새누리당이 호남 출신 대표를 선출함으로써 더민주는 호남민심 회복이 더욱 절실한 과제로 부상해 '호남대표론'이 힘을 받을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유일한 호남 출신인 김상곤 후보가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김 후보가 '호남 출신'이란 장점을 활용할 만큼 호남 대표성



김상곤



이종걸



추미애

- 김상곤** 호남 민심 회복 절박 '호남 대표론'
- 이종걸** '비주류 대표' 내세워 새누리와 차별화
- 추미애** 'TK출신'으로 맞붙...친문 결집 효과도

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난립한다. 또 이정현 대표는 호남 출신이라는 점 때문이 아니라 친박이라는 점 때문에 경선에서 승리한 것이라는 분석이 일반적이어서, 지역 대표성 여부가 경선판도를 흔들 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관측도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경선 결과가 오히려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분석도 나온다. 즉, 새누리당이 총선 패배 책임론에도 불구하고, 친박계가 완승을 한 것은 반대로 더민주 당원에게는 '각성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과 달리 더민주주는 주류인 친노(친노무현)·친문(친문재인) 후보가 아닌 비주류에게 당권을 맡김으로써 새누리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한 비주류

인사는 "호남 내 정서를 감안할 때 오히려 비주류인 이종걸 후보가 호남표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원과 지지자들이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를 '지역주의 균열'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경우, 대구 출신인 추미애 후보를 대표로 만들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여기에 새누리당 전당대회 결과가 더민주 내 친노·친문진영의 결속력을 높이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추미애 후보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당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친박당'의 모양새가 된 만큼 더민주 내에서도 유력한 대권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상황에서 각 후보들은 새누리당이

신임대표의 맞수로 자신이 적임자임을 내세우며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 측은 "당으로서 호남 민심 회복이 더 중요해졌고, 청와대·새누리당이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응도 중요해졌다"며 "국민을 먼저 바라보는 여당이 돼야 한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새누리당이 변화를 택했으니, 우리도 변화와 반전이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타오를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후보 측은 "대통령의 탈당과 내각 총사퇴, 중립내각 구성 등을 촉구하는 기조에 변화가 없다"며 "여당 지도부가 친박 세력으로 채워진 만큼 더욱 이 같은 요구에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사드 방중 논란' 숨고르기

지도부 언급 자제...방중 의원들 오늘 귀국 보고회

최초 의원 6명의 사드(THAAD)·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 관련 방중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더불어민주당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전날까지만 해도 더민주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선 연이은 방중 비판에 "색깔론"이라며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등 맞공세를 펼쳤지만, 10일에는 선제 대응을 자제하며 호흡을 가다듬는 모습이다.

더민주 지도부는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사드 관련 발언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일단 방중 의원들이 귀국한 상황에서 대외 비판으로 스스로 문제를 더 키울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우상호 원내대표는 "처음부터 방중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시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했다"며 "호들갑 떨 일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방중이 별 성과가 없다며 '그럴 거면 왜 갔느냐'는 식의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처음에는 나라를 팔아먹는 것처럼 떠들다가 왜 갔느냐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앞으로 차분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며 "중국 쪽 채널을 뚫으려 간 것인데 중국인론들을 진정시킨 효과도 있었다"고 자평했다.

김종인 당 비대위 대표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날 귀국하는 방중 의원들에 대해 "별다른 문제 없이 돌아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사드 방중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지적이다. 당장 이날 오후 귀국한 최선 의원 6명이 11일로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당 소속 전체 의원들을 상대로 공식 설명을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의 불똥이 어디로 튈지 알 수 없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홍보비 의혹' 박선숙·김수민 불구속 기소

국민의당 당원권 정지...진실 밝혀 명예 회복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은 10일 4·13 총선 홍보비 의혹으로 불구속 기소됨에 따라 당원권이 정지됐다.

이는 당헌에 따른 것으로, 두 의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당 의사결정 참여 등 당원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앞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박준영 의원도 검찰 기소로 당원권이 정지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이날 발표한 입장자료에서 "검찰은 무리한 영장청구가 두 번에 걸쳐 기각됐음에도 오늘 영장청구 사실 그대로 기소했다"면서 "공소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불법 비선조직 구성과 정치자금 제공, 허위계

약, 리베이트 제공 및 선거비용 허위 보전 등 검찰의 혐의 내용을 부인했다. 이어 "지난 선거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이익을 취한 것이 없음을 수사과정에서 확인됐다"며 "조직원도, 인력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선거를 치러낸 와중에 당이 조직적으로 어떤 범죄나 불법을 도모할 여유도, 그 어떤 이유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박 의원은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힘으로써 기대와 지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받은 마음의 상처와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 저와 당의 명예도 회복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복절 특사' 김승연·최재원 복권 쟁점

이재현 포함...내일 최종 결정

오는 12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최종 확정된다.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사면심사위원회(위원장 김현웅 법무부 장관) 회의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심사·의결했으며 이 명단을 청와대에 올리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확정·공포된다. 이번 사면은 서민과 중소기업인

등 생계형 사범을 위주로 단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사면 대상에서 정치인은 배제되고, 재범 추수도 극히 일부만 사면 또는 복권될 것으로 관측된다.

재계 인사로는 이재현 CJ그룹 회장 등이 사면심사위가 의결한 사면 명단에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근 가석방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가 마지막 쟁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범 추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박지원 "대선 후보 영입 위해 문 활짝 열겠다"

전북방문 이틀째...비대위 회의 "대선후보 1년전 당직사퇴 규정 6개월로...당규 개정 제안할 것"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다양한 노선의 대선 주자들이 모일 수 있는 '플랫폼 정당'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내 주목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전주 전북도의회 대회 의실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호남이준이 땅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진배의 개혁정치, 정동영의 통일정책 외에 외부 인사도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일련의 벽을 허물기 위해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에 대선 주자의 1년 전 당직 사퇴 규정을 6개월 전으로 개정하자고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정외의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정운찬 전 총리 등을 상대로 맞춤형 경선 룰을 마련하겠다는 '러브 콜'을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박 비대위원장은 오는 광복절 이후, 손학규 전 상임고문과 만날 예정이라는 일정도 밝혔다.

이와 관련, 당헌당규 제·개정위원회도 국민의당의 확장성을 견인할 수 있는 '융광'로 대선 경선 룰'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는 우선 국민참여경



10일 오전 전북 전주시 완산구 전북도의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전북 현장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박지원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을 원칙으로 하되, 기득권을 최소화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정외 주자들이 참여해 경선을 치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민의당 지도부와 전북 지역구 의원들은 전북 방문 이틀째를 맞아 지역

개발 공약을 쏟아내며 텃밭 민심에 구애에 나섰다. 이들은 이 자리에서 탄소산업 후속지원, 새만금 개발 지원과 수서발 고속철도(SRT) 전라선 증편, 서남대 정상화,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확대,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전북 출신 의

원 임명 등을 약속했다. 특히 지지부진한 새만금 개발과 관련해선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혀 주목을 끌기도 했다. /임동욱기자 tuim@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대출 대방출

자영업자를 위한 햇살론이 희망을 드립니다

- 대상자 : -3개월이상 영업중인 사업자
 - 연소득 4,000만원 이하로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인 자영업자
 -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3,0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 대출한도 : 최대 2,000만원 (창업자금 5,000만원)
- 대출금리 : 4.7% ~ 4.9%
- 대출기간 : 5년(1년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정책자금 1,000억원 한도내 선착순 마감!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서동본점 720-2828

양림지점 652-9203

월산지점 364-7557

주유소사업소 720-2800

서양새마을금고